



濁流清論

제21호 2012년 9월 18일(화)

발행인 : 강명구 / 편집 : 편집위원회

◇총장 업무수행 중간 평가 실시

- 기간 : 2012년 9월 17일 (월)
~27일 (목)
- 장소 : 각 학부 사무실

◇ 2학기 신입교원 환영회

- 일시 : 2012년 9월 25일 (화)
17:00~18:00
- 장소 : 교직원식당 오크룸

◇ 수시로 원고 접수합니다.

접수하실 원고를 교수회 전자 메일 (lisani@ajou.ac.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류청론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다면 위의 메일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더불어 푸른 솔밭에서 : 대학이란 무엇인가 대학의 시장화에 대한 소회	1
기초교육 강화사업 특집	3
기초교육대학 설립의 취지와 배경	3
기초교육대학과 ACE 사업	5
수학 기초과목 교육	7
ACE 사업과 글쓰기 교양교육의 변화	8
기초교육대학 - 전공 진입제	10
바람직한 전공진입제를 위하여	11
교수들의 직업병 : 몸이 가려우십니까?	12
소 식	14
소통과 답론	16

더불어 푸른 솔밭에서 : 기획 연재

대학이란 무엇인가

대학의 시장화에 대한 소회

자연과학부 윤호섭

다들 그렇겠지만 나도 어렸을 때부터 돈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다. 그 중 대부분은 ‘돈을 멀리하라’, ‘돈이 인생의 다는 아니다’, ‘세상에 돈보다 중요한 가치를 갖는 것이 많다’, 뭐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었다. 도덕적으로나 명분상 이를 받아들이기 별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어렸을 때부터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직업을 갖기를 원했고 그렇게 살기 위해 가장 쉬운 것 같은 교수로서의 길을 찾아 왔다.

대학에서 교수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학생들을 가르치고 새로운 학문을 연구하는 품위 있는 일이라는 것은 어렴풋이 들어서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나의 상상은 미국에서 대학원에 입학하면서 완전히 깨지고 말았다. 내가 본 미국의 교수들은 유능하고 성실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었지만 내가 상상했던 학자의 모습이랄기보다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업가에 가까웠다. 학교를 대표한다는 유능한 교수들은 수십 명의 대학원생과 연구원들을 이끌고

2페이지에 계속

있었고 큰 연구그룹에는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곳도 있었다. 당연히 새로 들어온 신입생이나 특별하게 부각되는 일이 없는 학생의 경우에는 지도교수가 그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학생으로서 교수의 얼굴을 보기도 쉽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연구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도 교수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려웠고 심지어는 학생이 자신의 학위 지도교수와 대면하는 것조차 미리 예약을 거쳐야 했다. 교수가 학생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실험실의 선배 또는 전문 연구원들이 학생들을 지도하게 되고 정작 교수는 자기가 지도하는 학생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교수의 관점에서 보면 교수는 많은 연구원들을 부양하여야 하는데 사람이 많다 보니 적지 않은 액수의 연구비가 끊임없이 필요하게 되고 교수는 연구보다는 연구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된다. 연구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논문이 필요한데 이러한 연구 시스템이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이 다량의 논문을 만들어 내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것은 마치 자전거를 탈 때 페달을 계속 밟아야 자전거가 쓰러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과 비슷한 이치이다.

학교 당국의 처지도 크게 다를 바 없었다. 학장, 총장 등 대학 지도자들의 성과는 그들이 받아오는 기금의 양으로 평가받게 되며 기금을 많이 모아 오지 못하면 그 자리를 다른 유능한 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당연히 대학 당국에서도 교수들을 연구비의 양으로 평가하게 되고 연구비의 액수가 학교에서 교수들의 영향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어 있었다. 이런 상황을 이용하여 연구비를 나누어주는 기관들은 그들이 마치 커다란 시혜를 베풀듯이 연구비를 지급하는데 당연히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몰아가게 된다. 이러다

보니 대학에서의 연구는 창의성과 중요성 보다는 정치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어 장기적인 기초 분야의 연구는 등한시되고 당장 무언가를 보여주어야 하는 연구, 당장 써먹을 데가 있어 보이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연구만이 가능한 형편이 되어 있었다.

우리나라도 국가에서 R&D에 쓰는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미국의 시스템을 따라가는 것 같아 마음이 편하지 않다. 언제부터인지 교수들이 모여서 하는 일상적인 대화의 주제는 연구비에 관한 것이 되었다. 교수와 대학 당국이 대형 연구비 수주에 사활을 걸고 있고 심지어 어떤 대학에서는 유관 기관의 퇴직자를 특채하여 로비의 창구로 활용한다는 말도 들리고 있다. 우리 학교에서도 현재 post-BK나 global Excel이니 하며 대형 연구비를 수주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고 돈에 초연하고자 교수의 길을 택했던 나 자신도 이 어지러운 판에서 어슬렁거리며 거들고 있다.

대학을 상징하는 문양을 보면 방패와 펜을 쓰는 곳이 많다. 그 중 방패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과 영향으로부터 학문의 자유를 수호한다는 중세 유럽의 전통을 담고 있다. 대학도 사회의 한 구성원인 만큼 대학이 사회와 담을 쌓고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지낼 수는 없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대학은 사회로부터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대학을 바라보면 사상과 학문의 수호자로서 최후의 보루인 대학의 이념은 그 빛이 많이 바랬고 학문을 위한 연구라기보다는 연구비를 위한 연구를 외발자전거를 타듯이 매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애처로운 모습이 보인다. 대학이 또 다른 의미에서의 시장 바닥이 된 것이 부끄럽고 안타깝다.

기초교육강화사업 특집

기초교육대학 설립의 취지와 배경

사회과학부 명예교수 김철환

소설가 장정일의 경험에 의하면 개는 가르친 대로 잘 따라 한다고 한다. 집 바깥에서 용변을 보도록 훈련된 개들은 어쩌다 주인이 늦어서 문을 열어주지 않을 때는 방광이 팽 차도록 그것을 참는다고 한다. 반면 인간들에게는 배움은 아무 소용이 없다. 온갖 고등교육으로 무장하고도 노상 방뇨를 일삼는 인간이 도처에 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대통령도 어려서부터 대학 졸업까지 “거짓말하지 말라”고 배웠을 것이다.

개는 배운 대로 잘 하지만 생각하지는 못한다. 반면에 사람은 배운 대로 못하지만 깨달을 수 있다. 신이 인간에게 준 큰 혜택이고 선물이다. 인간이 개보다 나은 이유이다 (간혹 반대의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장정일은 말한다. “선생은 절대 학생에게 ‘주입’하지 말고 ‘암기’시키지 말아야 한다. 그 배움은 다 쓸데없다. 어떻게 하면 ‘깨닫게 해 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교육”이라고 (장정일, <생각: 살면서 깨닫다>, 2005, 80-82).

이러한 지적은 특히 고등교육에서는 유념해야 할 사안이다. 과거의 주입식 암기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한 고등교육기관이 심각하게 성찰해야 할 대목이다. 이미 지식의 유비쿼터스(ubiquitous) 시대가 도래 했다.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소스는 도처에 존재하고 있다. 지식을 전파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던 대학의 특전은 이제 사라지고 있다. 더욱이 대학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은 극히 제한적인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설립 취지

이제 대학은 학생들에게 일방적인 지식의 주입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사유하고 깨닫는 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대학의 패러다임이 교육에서 학습으로, 가르침에서 배움으로 바뀌어야만 하는 연유이다. 이러한 변화가 없다면 교육을 통한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일”(이계삼, <영혼 없는 사회의 교육>)이나, “교육의 목적이 현재도의 추종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비판하고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프랑스 철학자 콩도르세)은 기대하기 어렵다.

아주대학교는 2008년에 본격적으로 이러한 준비를 시작했다. “교육역량 강화 사업”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도록 권장하고, 학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교육역량 강화 사업”에 포함된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학부대학(university college)”의 설립이었다. (학부대학은 이사회 심의과정에서 현재의 기초교육대학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학부대학은 전공이수를 위한 기초교육을 강화하고, 소통능력 배양을 위한 글쓰기 읽기 발표 및 토론을 강화하고, 비판적이고 창조적으로 사유할 수 있도록 전 학년에 걸쳐 교양교육을 강화하는 등을 구체적인 실천전략으로 삼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아주인은 “분별력을 가진 시민(people with discernment),

의사소통역량을 갖춘 시민(people with communicative skills), 튼실한 기초지식과 기능을 가진 시민(people equipped with basic knowledge and skills)”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기본역량과 지식을 갖추고, 소통능력과 분별력을 갖추게 된다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은 저절로 만들어 질 것이다.

설립 배경

기초교육대학의 설립을 추진하던 당시의 우리학교는 졸업생들의 사회진출이 종전에 비해 약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2003년에 77(81)%, 2004년과 2005년에는 80(85)%였던 순수취업률(전체취업률)이 2006년에는 67(72)%로 하락했고, 2007년에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신입생들의 수능성적과 등급도 떨어지기 시작했다. 아주대학교가 수도권대학이라는 불리한 여건에서 소위 “인-서울” 대학교들 보다 좋은 평판을 유지할 수 있었던 요인이었던 높은 취업률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현실을 아주대학교로서는 큰 위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더욱 우려스러웠던 것은 취업률의 하락이 우리학교가 다른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컸다는 점이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학교는 기초교육대학을 설립하고, 이수과정을 통하여 핵심역량을 강화시켜 졸업생들이 “보다 나은 미래”에 접근할 수 있기를 기대한 것이다. 누구의 말을 빌려 쓰자면 제대로 “밥벌이”는 할 수 있는 학생들을 키워내자는 소박하고도 절박한 소망의 발로가 기초교육대학이었다.

인간이 고작 밥과 같은 1차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대학이 세속적인 욕망에 휩싸여 가는 것을 경계하는 고연도 마냥 부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보릿고개를 넘는데 급급했던 한국인들에게 “제대로 된 밥벌이”는 자신의 행복을 가장 확실하게 보증해주는 유일한 수단임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생각은 학부모들도 공유하고 있다. 우리학교 2009학년도 신입생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학부모들이 학교에 원하는 것은 폭 넓은 교양교육, 깊이 있는 전공교육, 그리고 사람다운 인성교육을 시켜달라는 것이었다. 결국 학부모들도 자신의 자녀들이 제대로 된 직장에 취업 후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학교가 배려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덧붙여

기초교육대학의 설립과 운용에는 막대한 자원이 투입되었을 것이다. 기초교육대학 출범 후 그 성과에 대한 평가 작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기초교육대학 프로그램을 수료한 첫 졸업생이 배출된 이후 정교하고 전 방위적인 사후평가는 필수이다. 평가는 취업률, 신입생의 교육 만족도, 고학년의 수학능력 정도 등 다양한 기준과 자료를 활용해야 하고, 필요시에는 외부기관의 평가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이 점은 “학부대학 설립에 관한 연구” 보고서(2008. 8, 40쪽)에도 명기되어져 있고, 교내의 소정 절차를 밟는 과정(학처장회의, 운영위원회, 교수회의, 교무회의)에서도 밝히고 의결되었다. 교수회 뿐 만 아니라 총장과 학교가 챙겨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기초교육 강화사업 특집

기초교육대학과 ACE 사업

기초교육대학 홍성기

올해 우리학교는 ACE 사업평가에서 2011년 선정된 전국의 대학 중에서 1등을 하였다. 사업초기부터 관여하였던 사람으로서 기쁘지 않을 수 없다. 기초교육대학은, 물론 전공과 비교과와 함께, 원래 계획되었던 모든 사업을 첫해부터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김으로써 ACE 추진에 대한 학교의 의지와 진실성을 심사단에게 확신시키는 데에 일정부분 기여하였다. 그러나 4년, 현실적으로 3년 정도라고 생각되는 ACE사업이 좀 더 원활하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개선되거나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학내 구성원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기초교육대학의 경우,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던 시스템상의 문제를 혁신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강의의 질과 다양성을 넓히는 것은 학생들이 좀 더 나은 대학교육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반사업이다. 여기에 직접 관여하는 기교대의 교직원 모두가 사업목표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으며 동시에 사업의 조그마한 진척에서도 기쁨을 얻고 있다. 그러나 교양교육의 특성상 기초교육대학만의 일이 아니다. 이점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여기에 권리와 의무사이에 심한 비대칭성이 있다. 각 전공에서 교양강좌의 신설을 요청할 때는 적극적이지만, 기초교육대학에서 오랫동안 논의하여 공식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나 혹은 우리’와 무관한 일로 치부하거나 기초교육대학은 봉건시대의 여성처럼 어떤 주도권도 없는 듯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 ‘아주교전’과 ‘AFL(Ajou Flagship Lecture)’ 등 기초교육대학의 몇몇 주요 ACE 사업은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는 미완의 프로젝트로 끝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렇다고 페미니즘적 기초교육대학 운동을 벌이기에는 성비(性比)에서 너무나 역부족이다.

둘째, 핵심 인적자원의 확보는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기초교육대학은 학교 전체 강의의 거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으나 실제 인적자원은 상당히 빈약하다. 물론 교양교육은 강의의 절대부분을 각 전공 및 외부강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ACE 교양사업의 핵심엔진을 운영하는 인력을 외부로부터 충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보고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예상했던 혹은 예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을 결정하고 처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팀워크와 격의 없는 논의 및 많은 시간의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기초교육대학의 ACE 핵심인력은 교원, 직원을 막론하고 자연스럽게 생성된 강한 팀이 되었다. 사업의 시작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얼굴을 붉히며 싸운 적도 없지만 그렇다고 이 사업을 단순히 처리해야 할 숙제로 생각하는 구성원도 없다. 뭔가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기초교육대학의 ACE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도 완전히 충당되지 않았다. 또 기초교육대학에서 교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특임교원의 경우 좀 더 안정된 고용상태가 도입되어야 현재 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번 ACE 사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좀 더 세련된 Post-ACE 교양교육사업의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현 단계에서 ACE 사업의 중심은 평가보다 실행에 있어야 한다.

ACE 사업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 중의 하나는, 자원이 부족할수록 새로운 사업의 실행이나 혁신보다는 여러 가지 평가제도를 도입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다. 평가는

어떤 사업을 하든 반드시 필요하지만, 평가를 통해 수준을 높이려는 시도는 금방 한계에 부딪힌다. 그것은 마치 건강검사가 건강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이더라도, 검사를 통해서 건강 자체가 개선되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 꼭 필요한 평가제도는 단순하고 합리적이며 많지 않아야 한다. 특히 실행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원래 평가에는 관심을 갖기 어렵다. 왜냐하면 사업성공에 꼭 필요한 유연한 상상력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또 평가와 관련하여 지표관리는 ACE 사업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지표관리가 사업의 목적일 수는 없다. 특히 지표가 쉽게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표관리는 자기공격적일 수 있다. 지표가 조작될 경우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서 지금은 사업의 실행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시쳇말로 일단 ‘질러야’ 길이 보인다. 왜냐하면 적지 않은 인적, 물적 자원이 투입된 사업의 결과에 대하여 만인이 주시하고 있다는 점은 실행자에게는 고통이지만 새로운 길을 찾는 원천이기 때문이다.

넷째, 외국이나 타 대학의 사례는 일단 참고자료일 뿐이다.

외부의 좋은 사례를 무시하자는 것은 전혀 아니다. 그러나 교양교육 관련 학회나 포럼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결론은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인프라 없이는 전혀 도입할 수 없다는 점이다. 꽃가게에서 사는 것은 꽃뿐이지만, 스스로 꽃을 피우려면 많은 사전 작업이 필요한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만일 학내의 자원을 요구하는 사업을 도입하려면 반드시 요구되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학내의 자원으로는 무엇보다도 인적, 물적 자원이 있지만 동시에 교수사회의 풍속, 학생의 수준이나 경향 등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역으로 많은 인프라가 요구되는 사업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사업과 동시에 인프라를 급격하게 확충할 수도 있다. 물론 학교의 강한 추진의지가 필요하다. 어쩌면 인프라의 중요성이 사업의 ‘일단 실행’을 강조하는 것과 상충하는 듯이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여기서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실행에 있어서 인프라를 살피는 일은 정말로 중요하다.

다섯째, ACE 사업은 ‘선도사업’이다.

ACE 사업의 ‘공식적’인 목적은 몇몇 대학에 학부교육을 개선토록 지원하여, 그 결과를 타 대학으로 확산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짧은 사업기간에 사업을 실행, 완료, 평가하여 타 대학으로 전파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실행과 성공이 어렵기 때문만이 아니라, 사업성공의 인프라를 같이 전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ACE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대학이 확산을 약속하였다. 이를 위해 기초교육대학은 사업을 시스템과 모듈의 두 방향으로 정리하였다. “시스템”은 도입하는 대학에 상당한 인프라를 요구하는 사업으로 사실상 쉽게 전파되기는 어렵지만 확산에 성공한다면 매우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다른 한편 “모듈”은 타 대학의 자원을 거의 혹은 전혀 요구 하지 않아 교수나 심지어 학생이 개별적으로 도입 수 있는 교육내용이다. 비유하자면 요즈음 유행하는 스마트폰의 어플과 같다. 따라서 기초교육대학은 일단 교육모듈을 많이 만들어서 확산의무에 대비하고 나아가 ACE 후속 사업선정의 기반으로 삼으려고 한다. 이런 모듈의 예로서는 아주고전, 완결된 소형단위강좌(예:화학의 기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 만일 아주대학교에서 이런 모듈을 많이 개발한다면 실제로 이용도가 낮은 한국의 공개강좌(Open Course Ware) 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ACE 관련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초교육대학의 노력과 역할에 비해서 아직 그 체제가 완전히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 지금은 단순히 미봉책이 아니라 1학년 교육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기초교육대학의 위상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결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처럼 아쉬운 점도 있지만, ACE를 추진하면서 많은 교수님들의 도움과 함께, ‘텃마루 밑의 역사(力士)’처럼 보이지 않은 곳에서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교학팀과 혁신원에서 일하는 직원분들을 만난 것은 실로 큰 기쁨이 아닐 수 없다.

기초교육 강화사업 특집

수학 기초과목 교육*

자연과학부 하영화

***편집자 주 :** 본래 이 난은 수학과 과학 기초과목을 포괄하는 것으로 주제를 정하였으나, 각 과목 담당교수들이 타 과목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 함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여, 수학 과목에 국한하여 본 글을 신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교육대학에서 이공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수학 기초과목은 calculus(미적분학)로 이를 수학1, 수학2라는 3학점 3시간 두 과목으로 2개 학기에 걸쳐 제공하고 있다. 수학1은 일변수함수에 관한 미적분을 다루고, 수학2는 다변수함수와 벡터필드에 대한 미적분을 다룬다. 고등학교에서 이과수학을 배운 학생들에게 calculus의 첫 부분은 이미 배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두 학기에 calculus를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넉넉지도 않고 고등학교 수학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 이 부분들을 수학1에서는 제외하고 따로 기초수학이라는 과목으로 다루고 있다. 그래서 수학 기초과목의 계열은 '(기초수학) → 수학1 → 수학2'가 된다.

기초수학은 모든 학생들이 들어야 하는 과목은 아니다.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치른 배치고사에서 일정점수에 미달한 학생들이 수강대상자가 되는데, 원래는 문과출신으로 이과를 교차지원한 학생들에게 calculus를 배우기 전에 고등학교 이과수학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과목이다. 예년에는 신입생의 약 14% 내외 정도가 기초수학 수강대상자이었다.

몇 년전부터 수학1,2는 선수과목제를 적용해 수학1을 수강하지 않고는 수학2를 수강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지금도 복학생들 중에는 마지막 졸업학기에 이 과목들을 재수강하는 사례들이 있지만, 2012학번 신입생부터는 전공진입제까지 실시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시정되었다.

수학 기초과목은 이공계 학과들의 전공과목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과목으로 매년 신입생만 약 1300명 이상 수강하는 대규모 강좌이다. 강의를 담당하는 수학과에서는 매학기 이 과목 운영을 위해 주관교수와 조교를 배치하고, 적절하게 강의와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의를 담당하는 모든 교수자들이 협력하여 그 동안의 경험을 분석하여 강의내용을 조정하고 평가결과의 평정을 수행하고 있다.

수학1,2는 모든 반이 같은 내용과 진도로 수업을 한다. 휴일 등으로 인해 반별 진도가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사전 배포된 강의계획서에서 제시한 진도표에 맞추어 공동으로 출제한다. 학생들의 학습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온라인으로 문제를 풀어 제출하면 바로 채점결과를 알 수 있는 웹과제가 있다. 다년간 서버에 축적해 둔 문제들을 이용해 mapleta라는 소프트웨어가 진도에 맞추어 매주 또는 격주로 과제를 출제한다. 학생들이 정해진 기한 내에 이것을 풀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자동으로 채점이 되고 그 결과를 학생들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한 과제 당 3번씩 풀이 기회가 주어진다. 매번 채점 결과를 통해 틀린 문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3번의 시도를 통해 점수를 향상시킬 수 있다. 웹과제 제출이 마감되면 별도 session을 통해 풀이가 제공된다. 웹과제 점수는 기말에 성적산정을 위한 자료로 사용된다. 그리고 math clinic이 있다. 팔달관 319호에 수학과 대학원생 도우미들이 스케줄에 따라 대기하고 있다가 학부생들이 도움이 필요해 찾아오면 설명과 질문에 대한 응답 등으로 개별적인 도움을 준다.

평가는 총점 600점으로 산정된 개인별 점수에 따라 일괄적으로 이루어진다. 평가요소는 절대점수가 그대로 반영되는 중간고사(200점)와 기말고사(250점); 두 번의 퀴즈시험, 과제, 출석 등으로 반별로 산정하는 점수(100점); 그리고 웹과제(50점) 등으로 총점 600점이다. 학점 분포는 대략 A가 25%, B가 35%, 그리고 F가 10% 내외 정도이다. 이런 평가요소와 평가기준은 장기간에 걸쳐 그 타당성과 신뢰성이 검증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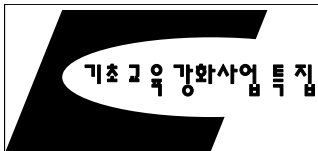
2012학번 신입생부터는 수학 기초과목 교육 시스템에 큰 변화가 생겼다. ACE(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 사업)와 교육역량강화 사업으로 교육의 질과 성과를 향상시켜야 할 이유와 예산이 생겼기 때문이다. 올해부터는 모든 이공계 학과가 전공진입제를 채택한다. 기초과학

과목에서 일정수준-올해 최종 시행안은 D이상의 학점-의 성적을 취득하지 못하면 전공과목을 수강할 수 없게 되었다. 학력하위자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수학 기초과목 교육에서는 지난 겨울학기 동안의 정책연구와 시범실시를 거쳐 보충반 운영과 tutoring실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학교가 제시한 다수의 소규모 연습반 운영과는 많이 다른 개념이다. 그동안의 교육경험을 통해 우리는 수학 학력하위자들을 2가지로 나누어 생각했다. 하나는 다수를 차지하는 강의 이해가 부족한 학생들과, 다른 하나는 상대적으로 소수인 아예 기초가 부실한 학생이다. 그리고 각각에 대한 대책을 달리했다. 전자를 위해서는 강의시간이 일반반의 1.5배에 달하는 보충반을 운영하고, 후자를 위해서는 tutor들을 모집해서 개별교습으로 도움을 주는 tutoring을 실시하는 것이다.

2012학년도 1학기에는 총 30개 반 중에서 5개반을 보충반으로 운영하고, 대학원생 2명과 학부생 22명을 tutor로 모집해 1인당 4명씩 모두 96명의 신입생에게 tutoring을 실시했다. 이를 위해 개강전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배치고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 신입생들을

기초수학반(0.4%), 보충반(14.5%), 일반반(85.1%)으로 나누었다. 기초수학반은 고등학교에서 이과수학을 전혀 듣지 못한 학생들로 두 반 운영했고, 앞으로는 폐지 또는 한 반 정도로 줄일 계획이다. Tutoring은 신청서를 받아 도움이 절실한 순으로 tutee를 선발해 실시했다. 보충반 학생들에게는 1.5시간의 연습시간이 의무적으로 부과되어 있어 실제로 tutoring을 신청한 학생들이 적었다. 의무적인 연습시간은 학생들에게 너무 많은 시간 부담을 주기 때문에 2학기에는 폐지하고 자율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공동 연습시간을 1반만 운영하고 있다.

1학기동안의 운영결과는 학생들의 학업성적과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통해 보충반과 tutoring 모두 의미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교육 프로그램들의 운영이 1주기도 되지 못했기 때문에 성과에 대한 최종평가는 아직 이르다. 그럼에도 수학 기초과목 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금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고 필요한 조치들도 제대로 실시될 터 이기에 차체에 결국 예전보다 더 나은 수학 기초과목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것을 전망하고 있다.



ACE 사업과 글쓰기 교양교육의 변화

인문학부 박명숙

<글쓰기> 과목은 기초교육대학의 교양 필수 과목 중 하나이다. <국어작문>에서 <글쓰기>로 교과목 명칭이 바뀐 것은 2009년부터이지만 교양 과목보다 다른 과목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도구 과목으로의 성격 변화는 그 이전부터 일어났었다. 대부분의 교수님들께서 학부 시절 혹시 들으셨을 <국어작문>이나 <대학국어> 등과 이 과목은 내용과 체계에서 많이 다를 것이다. ACE 사업과 더불어 기초 교양교육을 강화하고 재편하는 과정에서 글쓰기 교육은 이미 시작된 이러한 변화에 가속도를 가하면서 나름대로 성과를 얻었다.

첫 번째는 ACE 사업의 예산 중 일부로 강의 교수를 충원하여 인적 인프라가 구축된 것이다. 현재 글쓰기 강의전담 교수는 조금씩 교원수를 늘려 11명이 되었다. 이번 2학기의 경우 44개의 <글쓰기>과목과 심화 글쓰기(기타 심화 발표와 토론)가 운영되는데 외부

시간강사의 참여 없이 모두 강의교수들이 맡고 있다. 직접 공동 개발한 신교재와 표준 강의계획안을 사용하며 수업의 질과 수준을 균등하게 진행하고 있다. <글쓰기> 과목의 특성상 학생들에 대한 직접적인 피드백이 중요한데 강의교수들은 1:1 방식의 면담을 의무적으로 2회씩 진행하고 있다.

두 번째는 심화 글쓰기 과목의 개발이다. 지난 1학기 처음으로 <창의적 글쓰기>와 <비판적 글쓰기> 두 과목이 개설되어, 교양 필수인 <글쓰기>를 이수한 학생에 한해 심화된 작문 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두 과목 모두 강의평가에서 호응이 좋았고, 2학기에는 각각 29명, 25명의 수강생들이 신청하여 글쓰기에 대한 학생들의 적지 않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세 번째는 글쓰기 튜터제를 신설한 것이다. 일부 다른 대학의 경우에는 글쓰기 과목에 TA나 튜터들이 있었지만

우리 대학에는 없었다. 개요, 요약, 단락, 문장의 세부적인 것부터 기말페이지 작성까지 진행되는 수업 과정에서 학생들은 10여 회의 짧고 긴 글들을 쓰게 된다. 강의교수가 2회의 면담을 포함하여 그 모든 글을 일일이 꼼꼼하게 첨삭하는 것은 과중한 업무라고 할 수 있다. 강의교수들은 각각 32~3명의 수강생이 참여하는 4개 반에서 같은 수업계획에 따라 과제를 내기 때문에 동시에 나오는 첨삭량이 만만치 않다. 이러한 첨삭 보조 업무를 돕고 첨삭에 대해 1:1로 대면하여 학생들의 수준별 학습을 돕도록 ACE 사업이 시작되면서 글쓰기 튜터제를 만들었고 지난 1학기에는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튜터실을 운영하고 있다. 아주대 국문학과 대학원이나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석박사생들이 튜터로 참여하고 있으며 10월 중순에는 온라인으로 예약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지난 1학기 설문조사 응답 결과, 튜터의 첨삭 이후 글쓰기의 문제점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학생이 84.4%이었고, 튜터 제도가 글쓰기 수업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학생은 75.4%였다. 오프라인에서 수작업으로 했던 번거로운 1학기의 예약방식에 대한 불편도 컸고, 많은 개선해야 할 점이 있지만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글쓰기 교양교육은 ACE 사업의 재원을 바탕으로 교수자, 교과목, 수업보조인력을 확보하고 확장시켜 튼튼한 기반 위에 나름의 골격을 갖춘 셈이다.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 시스템(K-CESA)의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아주대 학생들의 의사소통역량 지수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집중교육체제로 글쓰기 과목이 바뀐 이후 수혜자인 저학년이 고학년보다 '쓰기' 능력에서는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고무적인 일로 볼 수 있다.

이 성과를 지속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남은 과제들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구축된 인적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강의교수들에 대한 처우는 전 기초교육대학장님의 남다른 노력으로 많이 개선되었고 그것은 높은 수업의 질로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ACE 사업이 끝나고 난 이후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 분명하지 않아 재계약 문제 등에 불안 요소가 남아 있다. 글쓰기 과목은 지식을 전달하는 수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잠재적인 역량을 끌어올리는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과목을 운영하는 교수자가

학생들에 대해 잘 파악하고 학생들에 맞게 숙련된 노하우로 교재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안정된 기한이 보장되는 3년 단위로 재계약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심화된 글쓰기 과목이나 튜터제의 경우도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글쓰기 과목의 정체성과 ACE 사업과 관련된 비전에 대해 깊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ACE 사업과 관련해 평가를 받게 되면서 <글쓰기> 교과목 개요나 수업 목표에는 '의사소통'이라는 어구가 중심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K-CESA에서 제시한 대학생의 핵심역량 중의 하나가 '의사소통능력'인데, 이것은 직무능력, 즉 취업과 관련된 능력을 지칭한다. 대학생으로서의 교양과 대학과정 이수에 필요한 작문능력 신장을 목표로 했던 기존의 교과목 목표나 교육 내용이 이러한 직능 지표로 판단될 수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정량적인 지표로 무형의 산출물인 교육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에 대해 많은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다. 이번 ACE 사업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대교협으로부터 받는 조언은 아주대학교만의 평가지표를 만들라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성과 지표는 수강생의 인원수, 개설 강좌 수, 강의평가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교육의 질을 평가했지만, 이제 교육콘텐츠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반영하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초교육대학에서는 의사소통역량지수를 개발하고자 하는데 글쓰기 과목이 대표적인 교과 과목으로 포함될 것이다. 이 문제는 취업과 학문 사이에 놓인, 크레바스처럼 깊은 틈을 어떻게 이을 것인가에 대한 글쓰기 교양 과목의 정체성을 묻는 반성적인 작업을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의사소통능력이나 대인관계 능력과 관련된 요구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했던 발표나 토의, 토론과 같이 구어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교육에 대한 필요도 생길 것이라고 본다. 때로는 지표(指標)가 가리키는 장단에 맞춰 대학이 춤을 추어야 되기도 하지만, 지표라는 것이 물신화되지 않고 학생과 교수의 요구와 현실이 조화롭게 만나는 지점을 가리킬 수 있도록 끌어오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닌가 생각한다.

기초교육강화사업 특집

기초교육대학 — 전공 진입제

기초교육대학 송하석

1학년 교육의 내실화를 목표로 설립된 기초교육대학은, 그 목적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학교가 추구하는 인재상인 ‘다산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다산교양교육’이라는 우리 대학 고유의 교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이 ‘다산교양교육’ 프로그램은 세 개의 큰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는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고 두 번째는 전공 수학능력을 높이는 기초과학과 수학 교육의 내실화 프로그램이며, 다른 하나는 현대 교육의 화두가 되고 있는 융복합적 사유 능력의 제고를 위한 융복합적 교양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중 의사소통 교육 프로그램과 기초 수학과 과학 교육 프로그램을 각각 ‘Power-Co’와 ‘Power-BSM’이라고 명명하고 수준별 교육과 보습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전공진입제를 통해서 그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실행 중이다.

교육에서 평가의 중요성은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교육에 대한 평가와 인증이 그 목표를 다하기 위해서는 그 시기가 중요하다. 많은 대학에서 교육 평가와 인증을 졸업과 관련시키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다. 실제로 우리 학교도 어학졸업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일정 수준의 어학능력이 되어야만 졸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졸업을 앞둔 학생의 어학점수가 졸업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정말 졸업을 보류할 수 있을까? 더욱이 그러한 학생이 한 두 명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학생이 그렇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그러기에 졸업인증제도는 그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우회적인 방법을 제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졸업인증제는 항상 ‘만시지탄’을 하게 한다. 결국 교육에 대한 평가는 실제적인 효과를 고려하여만 한다는 점에서 1학년을 마치고 전공으로 진입하는 시기에 기초교육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필요한 일이다.

전공진입제란, 학생들의 전공 수학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대학필수(글쓰기와 영어1,2: Power-Co) 및 기초과학과 수학(Power-BSM) 과목을 우선 수강하도록 하여, 전공 수학능력이 검증된 학생이 전공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수강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CoBSM 과목 중 각 전공이 요구하는 과목을

이수한 후에(최소한 먼저 수강신청을 한 이후에) 전공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수강 신청한 CoBSM 과목은 수강을 포기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전공진입제는 1학년의 수강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자율권의 침해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우리 학교 학칙에는 “학사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은 2학기 수료 후 3학기 진급시 별도로 정한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일부 전공과목 수강을 제한받을 수 있다.”는 전공진입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전공진입제는 이 규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이렇게 교육이란 본질적으로 자율권의 제한을 포함할 수 있는데, 전공진입제는 기초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자율권을 제한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기초과학이나 수학, 그리고 대학필수로 지적된 글쓰기나 영어는 전공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문자 그대로 기초과목, 도구과목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졸업을 앞둔 4학년이 기초과학을 수강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전공진입제의 대상 과목은 원칙적으로 Power-Co, Power-BSM 과목 중에서 각 전공이 정한 교육 과정의 1학년 과목으로 한다. 그러나 전공진입제의 대상 과목과 세부적인 사항은 각 전공에서 결정할 수 있다. 예컨대 각 전공은 평가대상 과목 중 특정 과목을 지정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학점 취득을 요구할 수도 있다. 전공진입을 위한 평가 대상이 되는 과목은 진단평가를 통한 수준별 교육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수강생들에게는 1학년을 마치기까지 계절학기를 포함해서 3차례 이상의 재수강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자신의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재수강의 기회에서는 다시 실패하지 않도록 튜터반을 운영하여 수강생들을 최대한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다. 전공진입제도는 2012년도에 입학한 학생들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지난 학기부터 기초과학과 수학 과목, 그리고 글쓰기 과목은 튜터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전공진입제의 성공적인 정착 여부는 교수와 학생을 포함한 학내 구성원들의 이해와 협조에 달려 있다. 또한 현재의 전공진입제는 주로 공대와 정통대를 위한 전공진입제이지만, 앞으로 인문대, 사회대 그리고 경영대의 전공진입제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전공진입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대를 위한 진지한 논의 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기초교육강화사업 특집

바람직한 전공 진입제를 위하여

전자공학부 김상배

전공진입제, 왜 필요한가?

진정한 의미의 학습은 관련된 여러 과정이 차례대로 이루어질 때에만 가능하다. 특히 대학생 학습자에 있어서는 학습할 내용이 자신의 인생설계에 비추어 의미 있는 것이 되어 학습동기가 유발되어야 하는 것이 학습의 첫 단계이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학습동기가 학습의지로 발현되어 충분한 노력으로 이어져야 한다. 의지와 노력만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학습역량이 충분해야 한다. 이 학습역량에는 학습할 내용에 대한 배경 및 기초지식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포함된다. 그리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주요 요소는 사고력과 고등인지능력이다. 이렇게 학습은 학습동기, 의지와 노력, 학습역량이라는 바탕 능력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바탕 없이 진정한 학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전공진입제의 진정한 의미는 전공 진입 전인 신입생 과정에서 학습의 바탕이 되는 이러한 역량들을 갖추게 하려는 데에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부족하고 심신이 피폐해진 상태에서 무기력하게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우리나라 대학 신입생들에게는 전공진입제의 필요성이 훨씬 크다 할 것이다.

전공진입제, 무엇이어야 하는가?

전공진입제가 전공진입 관문의 역할에 그친다면 그것은 본말의 전도이다. 전공진입제의 가장 큰 의미는 신입생들이 충분하고 의미 있는 교육지원을 받아 전공수업에 필요한 바탕 능력을 성공적으로 배양하도록 하는 데에 두어야 한다. 그리하여 거의 모든 신입생들이 전공에 진입하여 진정한 의미의 전공학습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전공진입제는 전공진입요건의 규정이 아닌 전공학습의 바탕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체제여야 한다.

내용적으로는 학습동기를 고양시키는 미래설계,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배양, 그리고 전공 학습에 필요한 기초 및 배경지식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방법론적으로는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초로 하되 부진학생에 대한 실시간 관찰과 지원, 탈락 학생들에 대한 구제방안 등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 역할을 현재의 기초교육대학에서 맡아야 하기 때문에 기초교육대학의 획기적인 혁신은 전공진입제의 시행과 정착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제도적으로는 선수과목제도와 유급제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하다. 전공진입요건의 일부만 충족시키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그 요건을 선수과목으로 하는 전공 교과목의 수강을 금지시켜야 하는데, 그 전제조건은 그러한 수강금지가 의미 있도록 신입생 교육과정이 충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전공진입요건의 대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한 학생에게는 선수과목제도가 의미가 없으므로 과감하게 유급시킬 필요가 있다. 이 유급제도 시행의 전제조건은 유급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에 대한 실시간 관찰과 상담, 적극적 지원이다. 유급자가 많다는 것은 기초교육체제의 실패를 의미하기에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유급생들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도 필요하다.

전공진입제의 성공요건

전공진입제가 성공하려면 전공진입제의 목표와 내용에 대한 교수진과 학생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 전공진입제 시행을 통하여 성취하려는 구체적인 목표에 대한 명확한 의견일치 없이는 전공진입제 시행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전공진입제는 전공진입요건이 아닌 교육지원체제여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기초교육대학에는 근본적인 혁신과 획기적인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전공진입제는 학사제도의 커다란 변화이기 때문에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교수진과 학생들이 합의한 최종적으로 완성된 제도에 대한 청사진을 놓고 어떻게 그 최종적인 제도를 단계적으로 완성해 갈 것인지에 대한 심사숙고가 요구된다.

이 단계적인 접근에 유용한 방법이 시범운영이다. 일부 학과나 전공에서 시범운영을 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을 파악하고 보완하여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자는 것이다. 시행착오가 제도 자체의 표류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바람직한 전공진입제를 위하여

현재 1학년 학생들부터 전공진입제가 시행된다. 대학필수 교과목과 수학, 기초과학 교과목을 전공 교과목 수강 이전에 이수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약한 의미의 선수과목제도로 전공진입제의

본뜻을 살릴 수 있을지 의문스럽지만 그 의미는 크다. 그러나 그 의미보다는 문제점이 더 많다. 앞에서 언급한 성공요건을 거의 못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제대로 준비해서 제대로 시작해야 한다.

교수들의 직업병

몸이 가려우십니까?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이은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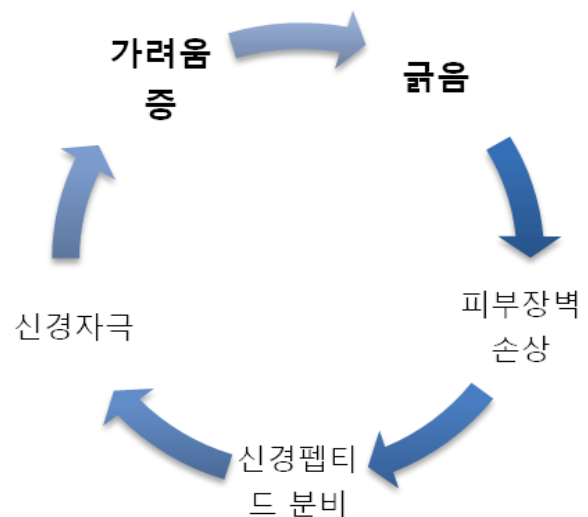
최근 일교차가 커지고 대기의 습도가 낮아지면서 부쩍 몸이 가렵다고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같은 학교에 몸 담고 있는 교수들도 종종 환자로 내원하기도 한다.

가려움증은 여러 피부 질환의 두드러진 증상이다. 이는 신체 전반에 걸친 전신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는 비교적 흔한 증상으로서, 피부를 긁거나 문지르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는 불유쾌한 감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생리적인 자기 보호 기능으로서 기생충이나 식물과 같은 해로운 물질에 대해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가려움증은 따끔따끔하거나 스멀거림 등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매우 주관적인 감각으로서 개인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며, 동일한 자극일지라도 때에 따라서 같은 사람에게서도 매우 다른 정도의 가려움증을 일으킬 수 있다.

가려움증은 외부자극과 무관하게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피부 질환이나 내과적, 신경과적 질환과 연관되어 발생하기도 한다. 긴장, 불안, 공포 등의 정신적 상태에 의해 심해질 수 있으며, 주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에 가려움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많지 않은 예이기는 하나, 외부 물질과의 가벼운 기계적 접촉, 주위의 온도의 변화, 화학적 물질이나 전기적 자극 등에 의해서도 유발될 수 있다. 가려움증을 일으키는 피부 질환에는 옴, 이, 벌레물림, 두드러기, 습진성 피부질환(아토피피부염, 접촉피부염, 화폐상 습진, 신경 피부염 등), 건선, 피부 건조증, 노인 가려움증, 피부의 악성 림프종 등이 있으며 침범된 부위와 환자의 감수성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다.

가려움증을 없애기 위해 심하게 긁거나 문지르는 경우, 가려움 발진, 긁은 흔적, 홍반, 균열(피부 갈라짐), 궤양, 두

드러기, 색소침착, 태선화(피부가 가죽처럼 두꺼워지는 현상) 등등 이차적 피부 병변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원인에 의해 유발된 가려움증 때문에 피부를 긁게 되면 피부 상태가 악화되고 새로운 염증이 발생하게 되며, 신경펩티드 등 가려움증 유발 물질이 분비되어 가려움증이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피부 질환이 아닌 전신질환에 의해서도 가려움증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원인으로 다른 질환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장기간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만성 신부전 환자의 경우 가려움증이 혈액 투석을 하게 될 때 심해지는 경향이 있고, 악성 혈액 종양의 일종인 호즈킨병에서는 가려움증이 다른 전신 증상보다 수 개월 정도 앞서서 나타날 수 있다. 쓸개즙이 배출되는 담도가 막혀 황달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폐쇄성 담도 질환(원발성 담도 경화증, 간경화 등) 등의 질환에서도 가려움증이

잘 동반되며 여러 악성 혈액종양, 장내 기생충증, 갑상선 기능 항진증 및 기능 저하증, 당뇨병, 후천성 면역결핍증 등에서도 가려움증이 나타날 수 있다. 전신 질환에 의한 가려움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원인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려움증의 치료로 원인에 따른 치료가 중요하나 원인 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 증상에 따른 일반적인 치료방법이 중요하다.

1) 국소치료제

a) 보습제

보습제는 피부장벽 기능을 호전시킴으로써 가려움증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가려움증 치료에서 가장 기본이 된다. 피부장벽 기능을 반영하는 경표피수분손실 (Transepidermal water loss)은 밤에 증가하므로, 밤에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 피부를 밀폐시키면 야간 가려움증에 특히 도움이 된다.

b) 국소 스테로이드제제

국소 스테로이드제제는 피부의 염증을 억제함으로써 가려움증에 효과를 보인다. 그러나 직접 가려움증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염증성 피부질환과 관련된 가려움증에만 사용할 수 있다.

c) 국소 면역조절제

최근 국소 calcineurin 억제제 (Tacrolimus, pimecrolimus)가 아토피피부염에서 동반되는 가려움증을 억제하는 것이 알려져 있다. 국소 스테로이드제에 비해 피부에 오래 머물러 전신 흡수가 적은 장점이 있으나 피부 병변에 따라 치료 반응이 느리거나 때로는 불완전하게 치유된다.

2) 전신치료제

a) 항히스타민제

두드러기와 같이 히스타민에 의해 유발되는 가려움증 및 아토피피부염, 습진 등에 의한 가려움증 등에 사용된다.

1세대 항히스타민제의 경우 진정 작용으로 인한 가려움증 감소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이로 인한 생활의 불편(졸음)을 초래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1세대 항히스타민제의 진정 작용을 거의 보이지 않는 2세대 항히스타민제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b) 스테로이드제

염증이나 태선화로 인한 가려움증에 효과적이다.

c) 항우울제

항우울제는 중추 신경계 안에서 신경전달물질의 농도를 변화시켜 가려움증을 감소시킨다. 다만 항우울제에 따라서 소아나 청소년에 투여할 때 우울증이나 자살 충동이 증가될 수 있어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3) 광선치료

광선치료는 여러 종류의 가려움증 치료에 수십 년간 사용된 방법이다. 최근에는 협대역 자외선 B (Narrowband UVB)가 주로 사용되며 아토피피부염, 건선 등에 따른 가려움증에 효과가 좋다.

4) 생활 습관 변화

가려움증은 신체 주변의 온도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얇고 가벼운 옷, 침구를 사용하며 피부를 시원하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털옷과 같은 자극적인 옷감으로 된 옷을 입지 않는 것이 좋고 무엇보다 긁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커피, 홍차, 초콜릿에 많이 들어있는 카페인과 술, 콜라 등과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적 긴장은 가려움증을 악화시키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노인에서 잘 나타나는 피부 건조에 의한 가려움증은 목욕 빈도를 줄이고 목욕 후에는 보습제를 전신에 바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소식

I. 제 44차 대의원회 개최

지난 9월 12일 수요일 12시에 교수회 사무실에서 제 44차 대의원회가 열렸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1. 보고사항

1) 신입 총무 선임 보고 : 산업공학과 임석철 교수 선임
(임기: 2013년 2월 28일)

2) 펀드 투자 조사 위원회 보고

- ① 현재 보고서가 완료 단계에 있으며, 의견 조율 중임.
- ② 10월 중 보고서 발표회 개최 예정.

2. 토의 사항

1) 2학기 실시 예정 업무 검토 : 2학기 실시 예정 업무를 검토하며, 아래의 표와 같이 2학기 업무를 추진하기로 함.

월	시기	내용
9월	중순	총장중간평가 설문지 배포, 설문 시작 (9월 17일부터)
9월	하순	2012학년도 2학기 신입교원 환영회 (9월 25일)
		총장중간평가 설문지 수거 (9월 27일까지)
10월	초순	총장중간평가 설문 조사 집계 시작
	중순	펀드투자조사위원회 발표회 개최 총장중간평가 설문 조사 결과 분석 시작
11월	초순	총장중간평가 관련 발표회 및 공청회 개최
1월	중순	교수회 신입 의장 및 감사 선출 공고
2월	중순	교수회 신입 의장 및 감사 선출 투표

2) 총장 중간평가 관련

- ① 중앙일보 대학 평가 발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중앙일보 평가에 대한 공신력이 의심되며, 총장 평가의 지표와 상관되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와 무관하게 앞당겨 진행하기로 함.
- ② 9월 14일까지 각 학부사무실로 설문지 배포 후, 9월 17일부터 27일까지 설문조사 실시.
- ③ 선거 진행 방식으로 각 대학 대의원들이 소속 대학·학부의 교수들에게 설문조사에 참여 할 것을 독려하며, 설문 완료 후 설문지 수거하여 교수회 사무실로 제출하기로 함.

3) 건축위원회 위원 선임

대학 평의원회 의장 추천으로 독고운 교수가 연구년인 김장훈 교수의 후임 건축위원회 위원을 맡는 것에 모두 동의함.

4) 신입교수 환영회

- ① 2012학년도 2학기 신입교원
- ② 일시: 2012년 9월 25일 오후 5시~6시
- ③ 장소: 교직원식당 오크룸
- ④ 대상: 2012학년도 2학기 신입교원 및 교수회 대의원
- ⑤ 내용: 간단한 다과를 겸한 신입교원 환영식

5) 교수회 예산 관련 (교수회비 공제건)

- ① 1000만원이었던 교수회 예산이 통지 없이 882만원으로 축소됨.
- ② 올해 총회 개최 및 기자재 구입(복사기, 노트북 239만원), 위원회 활동 증가로 예산 사용 증가. 현재 예산이 모두 소진됨.
- ③ 현재 예산팀에 300만원 추가 편성을 요청하였음.
- ④ 추경 반영까지의 운영비를 불가피하게 교수협의회 회비에서 100만원 사용하기로 함. (추경 반영 전까지

소 식

회의비, 신문인쇄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될 예정)

원장, 기초교육대학장에게 요청할 것임.

- ⑤ 교수회비를 교수회 회원들로부터 공제하는 안이 발의되었으나 시행하지 않기로 함.
- ⑥ 2013학년도부터 교수회 예산을 기존 1000만원에서 500만원 증가한 1500만원으로 신청하는 것에 모두 동의함.

6) 감사 선임 (박경주 교수 후임)

- ① 관련 규정 : 제15조(임원의 임기)
 - 부의장 및 감사의 궐위 시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 제3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선출되거나 승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② 경영대학 원동철 교수가 감사를 맡는 것에 모두 동의함. (임기: 2013년 2월 28일)

7) 기타 (교수회 대의원 결원 충원 등)

- ① 결원이 생긴 단과대학에 충원을 요청할 것임. (법학전문 대학원)
- ② 단과대학 미소속의 대의원 1인 선출을 교육대학

3. 건의 사항

1) 연구년위원회 보고서(3년6개월 복원) 관련

- ① “3년 복무 후 6개월 연구년 실시” 복원에 관한 진행 사항을 교수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음.
- ② 총장실에 연구년보고서 제출 (교수회 제 12-05호 2012.03.19) 건에 관한 진행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후, 이에 총장실의 대처를 교수 들에게 공지 할 예정.

2) 대의원 임기 안내 : 각 대학의 대의원의 임기를 대의원 명단에 표시하여 안내할 것임.

II. 총장 업무수행 중간 평가 설문조사 실시

지난 3월 14일 총회 의결사항이었던 총장 업무수행 중간평가 설문조사가 9월 17일부터 시작되었다. 설문조사기간은 27일(목)까지며,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여 방법은, 설문지를 수령하여 작성한 후,

학부 내에 비치된 수거함에 넣으면 된다. 본 설문조사를 통해 11월 초에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2012학년도 2학기

아주대학교 신임교원 환영회

●일시 : 2012년 9월 25일 (화) 오후 5:00 ●장소 : 오크룸 ●주최 : 아주대학교 교수회



소통(疏通)과 담론(談論)

감정은 투쟁의 대상이 아니무니다.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 친구무니다.

김은정(사회과학부 심리학전공)

이 제목은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개그콘서트의 가루상의 말투로 표현한 것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하루에도 열 두번씩 다양한 감정을 느낀다. 우리는 같이 사는 배우자에게도 어떤 때는 애뜻한 감정을 느끼다가도 어떤 때는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감정을 한번씩 충동적으로 느끼기도 한다. 우리는 예수님도 부처님도 아니기 때문에 남한테 말하기 어려운 부끄러운 생각이나 유치한 감정도 수없이 많이 경험한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우리 속담이 말해주듯, 인간적인 질투나 시기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동료 교수가 큰 연구 프로젝트에 선정되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감정 중 하나는 부러움과 시기이다. 사실 조금 배가 아픈 것은 너무나 인간적인 것이다. 어떤 사람은 부럽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동료의 노력을 칭찬해주고 기뻐한다. 그러면서 자신도 자극을 받는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부럽고 조금 시기질투가 나는 감정은 그저 왔다가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는 감정이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부러워하는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안 부러운 척한다. 이런 사람은 자연스러운 시기와 질투를 견딜 수 없어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감정의 노예가 된다. 이런 시기와 질투는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자신에 대한 비하로 이어져, 한동안 내내 이 사람은 시기와 질투, 자기비하나 미움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내가 받았어야 했어. 나는 왜 받지 못했지?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야?’ 하면서 감정의 노예가 된다.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내가 나에게 솔직해지는 것이다. ‘아, 엄청 부럽네. 내가 받았으면 좋았을 걸. 나도 한번 해 볼걸’하는 내 감정을 솔직히 받아들이면 벗어날 수 있다.

우리는 사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잘못 교육을 받았던 적이 많다. 감정은 억누른다고 없어지고 것이 아니다. 억제로 억압된 감정은 신체적 증상과 같은 다른 문제로 나타나기도 한다. 우리나라 남자들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남자답지 못하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남자는 절대로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된다. 남자가 가버워서 안 된다. 남자가 경박하면 남자답지 못하다. 또한 우리나라 여자들도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현모양처의 미덕인 것처럼 잘못 사회화되는 경우도 많다. 필자도 자라는 내내 할아버지로부터 ‘여자가 얼굴빛이 자주 변하면 못써’라는 소리를 귀에 딱지가 앉게 들었다.

이런 것들로 인해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되어버리기도 한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싸우고 억누를 것이 아니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돌봐야 한다. 감정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어떤 감정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감정이라도 기꺼이 받아들이면 그 감정은 어느 순간 왔다가 사라진다. 심리적 고통이나 불편한 감정은 정상적인 것이고,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다. 고통스럽거나 불편한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 감정 때문에 심한 괴로움을 겪지 않는 방법이다. 불편한 감정을 차단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고통스러워진다. 감정은 차단되거나 막아지지 않는다.

필자에게는 재수를 하면서 생각만큼 열심히 하지 않는 아들이 있고 6년 가까이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가 있으며 서울에서 어머니를 돌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나와 내 가족이다. 솔직히 얘기하면 나뿐이다. ‘우리 아들은 왜 이렇게 다른 집 아이처럼 열심히 안 하는 거야? 건강한 노인들도 많은데 왜 우리 어머니는 잠시도 혼자 둘 수 없는 저런 몹쓸 병에 걸린 거야’라고 실망하고 좌절하면 나는 괴로움의 바다에서 헤어 나오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약간 뒤집어 보면, ‘원하는 만큼 열심히 안 하지만 학원을 빼먹지 않고 다니는 건강하고 해맑은 아들이 있고, 우리 어머니가 치매지만 살아계시고 다행히 내가 능력이 되어서 요양비를 낼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야’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괴롭지 않다. 오히려 감사할 때도 있다. 내가 좌절과 분노로 죽니 사니 하면서 사느냐 그냥 받아들이느냐 오로지 내 선택이다. 나는 통제할 수 없는 내 감정과 고통과 싸우는 대신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나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보살핀다. ‘때때로’라는 말을 쓴 것은 내가 때때로 ‘이놈의 자식, 이것밖에 못해’라고 소리치고 씨름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시간을 아끼며 공부하지 않는 아들을 보면서, 화가 나고 속이 바짝 바짝 타는 나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때로는 부모로서 무력한 나의 모습을 들여다 본다. 그리고 그런 감정을 흘려 보낸다. 붙잡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감정은 그러다 사라지고, 어느 순간 조금 열심히 하는 아들을 보면서 흐뭇해 하는 간사한 나를 발견한다. 이것이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는 지금의 나의 삶이다.